

2025년도 제4호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교황 레오 14세는 선출 후 처음으로 주일 정오 부활 삼종기도를 바치며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ACN도 성 베드로 광장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전화 02-796-6440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4-459234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카리브해의 고통

6월은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달입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학교'라고 칭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이런 예수 성심 신심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현관 입구에 예수 성심 성화가 이런 문구와 함께 걸린 집이 많습니다. "예수 성심이 이 집을 다스리신다." 독재자 트루히요는 통치 기간(1930년~1961년) 동안, 이 성화를 철거하도록 하는 대신에 다음처럼 문구를 바꾸도록 지시했습니다. "예수 성심과 트루히요가 이 집을 다스리신다." 다행히도 이제 이런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카리브해의 히스파니올라섬에 자리한 도미니카 공화국의 많은 주민은 신앙심이 아주 깊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성심 신심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가 문장에는 십자가, 성경, 그리고 '디오스(하느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특히 지상 낙원과 같은 휴가지로 유명하지만, 같은 히스파니올라섬의 서쪽에 자리한 국가로 위기감에 시달리는 아이티처럼 이곳에도 빈곤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소위 '밧데이'에서 지금도 여전히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밧데이'는 원래 사악명 높은 '밧데이'에는 빈곤 속에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탕수수 농장에서 계절노동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바라오나교구의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 본당에서는 세 여성 수도자가 이런 빈민촌에 거주하면서,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 중에는 버림받아 홀로 지내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여성 수도자들 자신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몇 시간씩 전기 없이 지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포함,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다른 여성 수도자들에 게도 생활 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교회에서는 특별히 청소년 사목이 중요합니다. 많은 가정이 붕괴한 데다, 사이비 종파가 퍼지고 폭력이 증가하며, 범죄 조직이나 매춘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아이티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미니카 공화국은 마약 밀매의 중계지가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오-몬테 크리스티교구는 극심하게 가난하면서도, 2025년에 약 2만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임과 워크숍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카를로스 호세 로드리게스 신부는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젊은이들은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삶의 길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을 건전하게 지니기 위해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도 그 한 예입니다.

여성 수도자들을 지원하고,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17,000,000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1 자선 활동: 어르신 방문
- 2 하느님을 찬미하는 합창 연습
- 3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이 원하신 사랑의 왕국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많은 이들이 전통적인 부족 문화와 현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범죄율은 높고, 마약으로 남용되는 빈랑나무 열매와 알코올 소비가 만연해 있습니다. 아동 폭력과 학대가 빈번하며, 일부는 버림받거나 심지어 살해되기도 합니다. 많은 지역에 폭력과 복수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연민, 자비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덕목입니다. 다행히 많은 인내와 함께, 하느님 자비에 대한 증거가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회개와 회심의 기적들

사무엘(30)은 차량 절도로 이미 수감 경험이 있는 데다, 술을 많이 마시고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은 자신을 고용한 여성 수도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이는 성사 생활을 향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보고, 자기 삶과 혼인 생활을 정상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하던 날, 사무엘의 아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술을 끊었고, 다시는 아내를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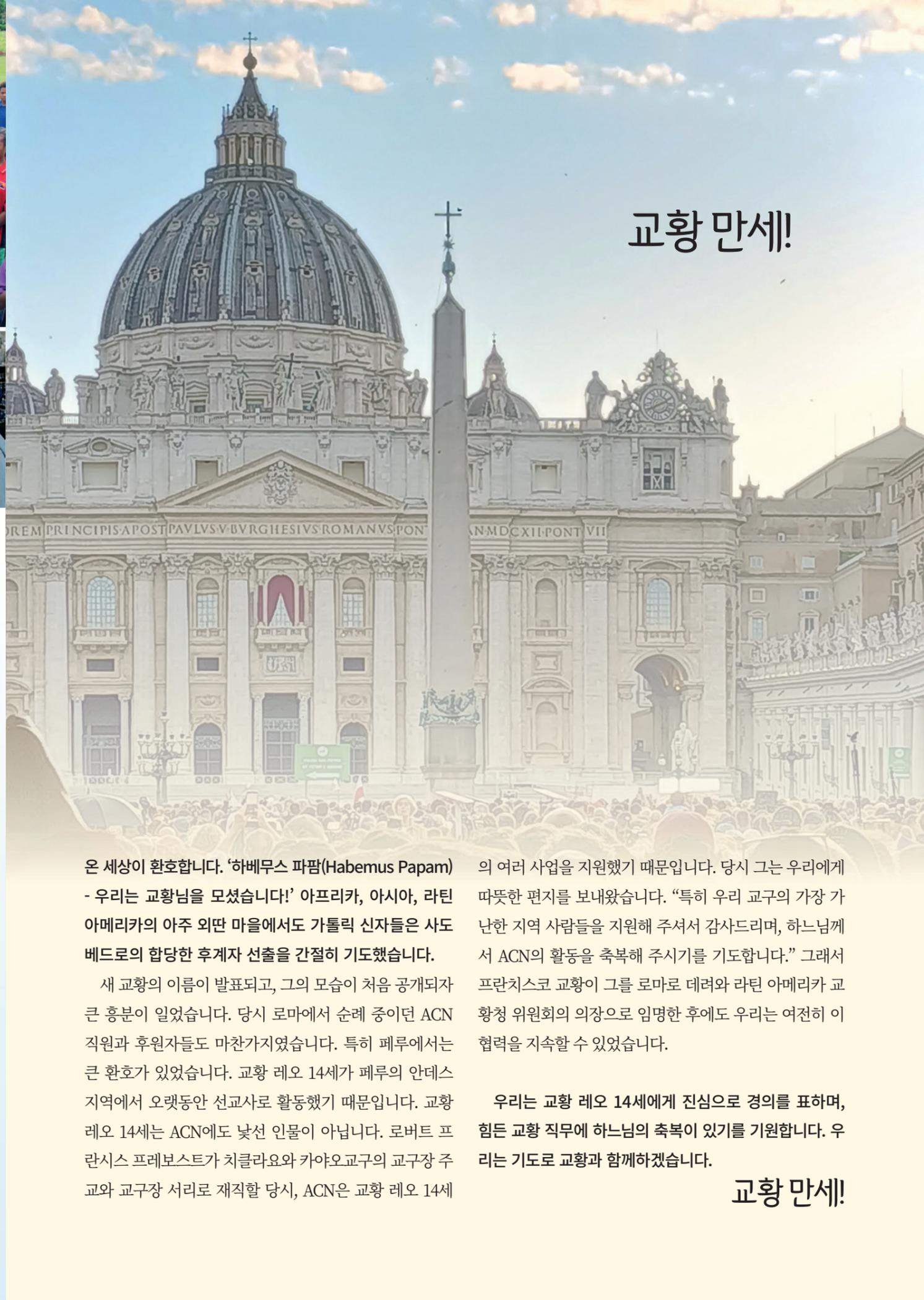


① 성체 -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치유의 약
 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하나님께 기도하는 청년들
 ③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사랑의 복음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

리처드(21)는 항상 반항적이고 거칠었습니다. 그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형들은 이미 범죄 경력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역시 점점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젊은이들을 위한 성찰의 시간에서 탕자의 비유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개인적인 참회의 시간을 가졌는데, 먼저 사제가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리처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사제에게 매달려 울었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울음을 그치지 못하자, 사람들이 조용히 그를 옆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는 3시간 동안 계속 울다가 마침내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카타리나 수녀가 말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그 후 리처드는 매달 고해성사를 보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몇 달 후, 자전거 사고로 중상을 입은 리처드는 몇 시간 만에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카타리나 수녀가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겨우 21살이었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잘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목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모두 깊은 내적 평화를 느꼈고, 리처드가 이미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회개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도 주교회의의 가정 사목에 39,000,000원을 지원합니다. 전국의 모든 사람이 폭력에서 벗어나고, 서로 존중하며, 자녀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도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루카 19,9)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교황 만세!

은 세상이 환호합니다.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 - 우리는 교황님을 모셨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아주 외딴 마을에서도 가톨릭 신자들은 사도 베드로의 합당한 후계자 선출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 교황의 이름이 발표되고, 그의 모습이 처음 공개되자 큰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순례 중이던 ACN 직원과 후원자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특히 페루에서는 큰 환호가 있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페루의 안데스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ACN에도 낯선 인물이 아닙니다.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가 치클라요와 카야오교구의 교구장 주교와 교구장 서리로 재직할 당시, ACN은 교황 레오 14세

의 여러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는 우리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우리 교구의 가장 가난한 지역 사람들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ACN의 활동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를 로마로 데려와 라틴 아메리카 교황청 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협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황 레오 14세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힘든 교황 직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교황과 함께하겠습니다.

교황 만세!

ACN 한국지부 소식



ACN 한국지부, 제15회 이사회 및 제9차 정기 총회 개최

2025년 5월 29일(목),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한국지부는 제15회 이사회 및 제9차 정기 총회를 서울대교구청 신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사회와 정기 총회에서는 2024년에 진행한 모금과 활동에 대해 보고 하며 2024년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에도 ACN 한국지부는 전 세계 고통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더 열심히 알리고, 기도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방송시간

6월 27일(금)

06:00

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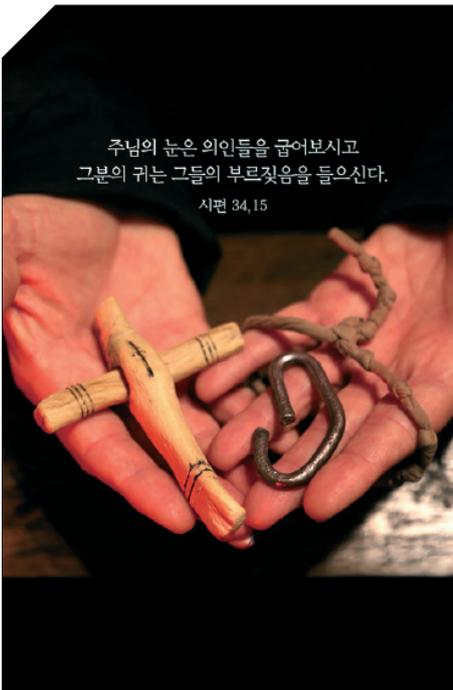
12:00

18:00

ACN 후원자의 날 TV 매일미사

ACN 한국지부는 2025년 6월 27일(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맞아 ACN 후원자의 날 기념 미사를 봉헌합니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 TV 매일미사를 통해 거행되는 후원자의 날 기념 미사에 함께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ACN 한국지부 설립 10주년 심포지엄과 감사미사

일시 2025년 7월 10일(목) 15시~18시

장소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패밀리아 채플

ACN 본부는 194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ACN 한국지부는 2015년 설립되었습니다.

박해받고 도움받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박해받아 도움을 청하는 가톨릭 교회를 돕고자 ACN 한국지부를 설립하였습니다.

전 세계 24개 국가지부 중 21번째로 설립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지부인 ACN 한국지부는 하느님의 도우심과 후원자들의 물질, 영적 지원 덕분에 전 세계 고통받는 교회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ACN 한국지부는 은총 속 지난 10년을 감사하고,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며 아래의 행사를 준비하였으니, 후원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심포지엄

- 1 폭력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의 박해에 맞서 희망의 증거자가 된 부르키나 파소 교회 필리프 우에드라오고 추기경(부르키나파소 전 와가두구대교구장)
- 2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박해에 맞서 신앙을 지키려는 신자들을 지원 하는 ACN의 역할 레지나 린치(ACN 수석대표)
- 3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슬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박현도 스테파노 교수(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감사미사

17시~18시

주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ACN한국지부 이사장)